# 호남-충청-수도권 잇는 '서부벨트' 복원 스타트

## ■신당·민주당 통합선언 의미와 전망

범여권의 양대 세력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12일 후보단일화와 당 대 당 통합을 함께 이루는 '원샷 통합'을 선언, 정치권의 지각변동은 물론 대선 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민주당 분당 사태 이후 분열됐던 범여권은 4년 만에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12월 대선에서의 막판 대역전극을 펼친다는 기세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보수 진영과 단일 대오로 맞섰던 정통민주개혁세력이 다시 하나로 뭉쳤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샷 통합으로 보수진영과 범여권의 대결 구도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범여권 지지층이 단일후보로 정해진 대선 주자에 대해 '일치된 지지'를 보낼 수 있게 된 점이 플러스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호남을 양분했던 대통합신당과 민주당이 통합 정당을 구성함에 따라 그동안 침묵하거나 보수 진영으로 옮겨간 수도권 호남표심에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여기에 호남 출신인 정동영 후보와 충청 출신인 이인제 후보의 단일화는 범여권 지지층의 기본 골간인 호남-충청-수도권의 서부벨트를 되살릴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을 근거로 범여권은 후보단일화 이후 단독 후보의 지지율이 20%를 뛰어넘어 후보 등록 이후 대선 정국은 3강 구도로 재편되면서 막판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범여권은 합당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통합민주당 단일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도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선 후보 등록 이후 문국현 후보가 지지율 상승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3강 구도가 확고하게 형성된다면 범여권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 시기는 12월 초순께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오충일 대표, 민주당 이인제 후보와 박상천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합당을 위한 '4인회동'을 갖기 직전 서로 먼저 들어갈 것을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보수 VS 범여권 구도 완성, 시너지 효과 기대
### 일각선 "정치공학적 통합…파괴력은 미지수"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통합의 파괴력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지난 97년 대선의 DJP(김대중-김종필) 연대, 2002년 대선의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가 선행됐다는 점에서 이번 통합은 당시처럼 극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통합은 호남 표심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민주·개혁세력에 등을 돌린 수도권 30~40대 유권자층을 붙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번 통합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론의 환경도 그다지 부드럽지 않다는 부분도 부담이다.

범여권 관계자는 "일각에서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지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통합을 계기로 대선 구도는 보수·부패세력과 민주·미래세력과의 대결로 대선 막판까지 혼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원샷 통합' 후 재·보선 공천 어떻게 되나

# 여론조사후 후보단일화 유력

### 오늘부터 양측 실무협상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 선언으로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 일정과 방법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초 신당과 민주당은 이번주 초 공천심사위를 열어 오는 15~16일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두 당이 이번 주중으로 합당을 마무리하기로 해 공천작업은 일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재보선 공천에 대한 일정과 방법은 13일부터 진행될 실무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합을 합의한 4인 회의에서 재보선 공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실무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백지상태에서 시작할지, 아니면 양 당의 심사 과정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타협책을 찾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통합된 당(통합민주당)에서 공천심사특위를 구성, 다시 후보 공천 과정을 거칠 것이란 예상이다. 물론 이 경우 양 당에 이미 신청한 공천희망자를 모두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두 당이 분열된 상태여서 무소속을 선택한 후보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황에 따라 추가 공천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

대통합신당 측 관계자는 "모든 후보자 또는 양당이 복수 지명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논란을 없애는 방법이긴 하지만 대선 후보처럼 후보단일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이미 양 당이 내부적으로는 공천심사 과정에 들어간 만큼 각 당이 합당을 완료할 19일까지 후보자를 한 명씩 뽑은 상태에서 후보 등록일(25~26일)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후보단일화 방법으로는 대선후보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여론조사의 폐해를 우려, 지역에 따라서는 전략공천이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

# 서울서도…무안서도 여수엑스포 유치 기원

### '희망의 돛' 출정식 등 행사 다채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한국시각 27일 새벽 3시)이 13일로 14일 남은 가운데 곳곳에서 여수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가 열린다.

14일 오후 7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여수엑스포 유치 기원 희망의 돛 출정식 및 한마음 콘서트'가 열린다. 김재철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해 모두 3천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여수엑스포 유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희망의 돛'을 올리고 '범국민 한마음 콘서트'를 통해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된다.

이어 20일 오전 10시 30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전남도청 1층 로비에서는 도내 기관·단체장과 22개 시장·군수, 의회 의장 등 지방유치위원과 간호사·택시기사·경찰관·학생·공무원 등 각계 각층의 도민이 함께 모여 유치를 염원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유치 기원 도민 한마음 행사'가 벌어진다.

이날 행사는 도민에게 드리는 메시지, 여수엑스포 유치기원 '희망의 꽃탑' 점등식, 풍선 2012개 날리기, 유치성공 기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22개 시·군 대표로 구성된 오토바이 홍보단이 멋진 퍼레이드를 펼친다.

투표 당일인 27일에는 새벽 2시를 전후해 도청 상황실에서 지방유치위원, 공무원 등 500여 명이 파리 현지 TV 중계 상황을 시청하며 유치기원 촛불 퍼포먼스와 함께 뜨거운 응원전을 벌일 계획이다.

또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 기간에 현지에 한복 도우미를 배치해 BIE 회원국 대표 등을 대상으로 홍보 브로슈어, 리플릿, 기념품을 나눠주고 유치 결정 당일에는 100여 명의 응원단을 파견해 현지 길거리 응원에 나선다.

여수엑스포 유치가 확정되면 화려한 불꽃 쇼와 사물놀이 대동 한마당, 축하공연 등이 열리며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치대표단 귀국 환영행사가 열리고 30일 오후에는 개최지인 여수에서 대대적인 범국민 유치성공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2012 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여수시에서는 19일부터 박람회 개최국을 결정하는 27일까지 9일간 모든 가정과 상가, 사무실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전 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이 펼쳐진다. 여수시는 시정 홍보지와 동사무소 방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지구 3바퀴 돌고, 각국 인사 150명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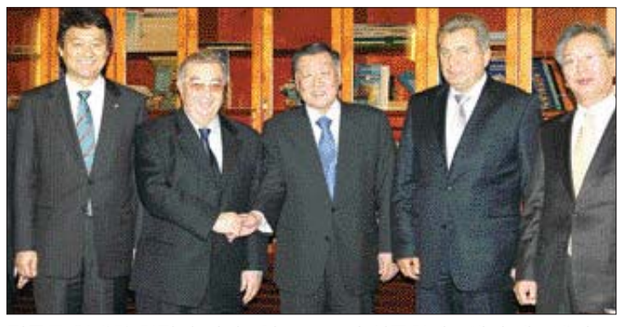
### 정몽구 회장 유치활동 6개월

'지구 3바퀴, 150명의 각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6개월여간 밟은 궤적을 숫자로 정리한 것이다.

정 회장이 엑스포의 여수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민간 외교' 활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부터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슬로바키아, 체코, 터키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번의 출장길에 올랐다. 특히 오는 27일 세계박람회기구(BIE)의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정 회장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정 회장의 출장거리를 마일로 환산하면 총 7만 2천750마일이다. 지난 반년간 지구를 약 세바퀴를 돌며 각국에서 여수 엑스포 유치 준비상황과 개최 열의를 전달한 셈이다. 정 회장은 슬로바키아와 체코를 각각 두차례 방문했으며, 터키, 브라질, 프랑스,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을 글로벌 현장 경영을 겸해 방문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지난 9일 모스크바 상공회의소에서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여수박람회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서갑원 국회 유치특위 의원, 프리마코프 전 총리, 정몽구 회장, 미카일 도빈도 상공회의소 자동차위원회 위원장, 정찬용 유치위 부위원장. 〈현대·기아차 제공〉

그는 또한 지난 10월초 파리, 슬로바키아, 체코, 독일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출장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유럽 내에서 비행기를 임대해 이동하는 열정을 보였다.

정 회장이 총리급 이상의 인사를 만난 것만 해도 5차례에 달한다. 출장길에 올라서는 물론 한국을 찾는 주요 인사들을 만남으로써 '여수 알리기'에 나선 정 회장이 지난 반년간 만난 장·차관급 인사는 90여명이며, 40여개국의 대사급 인사들과도 접촉했다.

또한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자리를 함께 한 BIE 회원국 대사 및 대표 60명, 미국 마이애미에서 만난 BIE 중남미 대표 40여명 등도 정 회장으로서는 반드시 만나야 할 주요 인사들이었다. /연합뉴스